

성인 딸과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Effects on Adult Daughter-Mother Attachment

퍼듀대학교 아동발달 가족학과

박사과정 : 俞 桂 淑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Purdue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Gyeesook, Yoo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론 및 가족발달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여 성인 딸과 어머니의 상대방에 대한 애착, 그들의 상호작용, 주거상 거리, 딸의 결혼 및 부모기로의 변환(transition) 등 성인 모녀 관계에서 중요한 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유목적적 편의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100쌍의 성인 딸과 그들의 친 어머니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횡단적 비교를 위하여 성인 딸의 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3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미혼의 딸과 그들의 어머니(미혼기), 자녀가 없는 기혼의 딸과 그들의 어머니(신혼기), 자녀가 있는 기혼의 딸과 그들의 어머니(부모기). 성인 모녀 애착 질문지를 이용하여 얻은 응답을 토대로 성인 딸과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인 모녀 애착은 상호 호혜적이었다. 성인 모녀간의 상호작용, 모녀간 애착의 차이, 딸의 결혼여부는 성인 딸과 어머니의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이들 변인과 관련하여 성인 모녀가 서로에 대한 애착을 지각하는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모녀간 주거상 거리는 성인 모녀 애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것은 성인기의 상징적 애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I. 서 론

최근 들어서 애착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애착이론을 부모와 아동기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Shaver & Hazan, 1988; Weiss, 1982, 1991) 혹은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Cicirelli, 1983)에

* 본 논문은 1995년도 퍼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까지 적용시키고 있다. 따라서 애착이론은 이제 인생의 전 단계에 확장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애착의 개념을 성인기 가족관계에 적용 연구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와 성인 딸간의 관계는 특히 이러한 애착연구에 적합한 대상이라고 여겨진다. 그것은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가족성원들간의 어떠한 관계보다도 지속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가기 때문일 것이다.

어머니와 성인 딸간의 애착의 본질을 보다 잘 언

구하기 위해서는 성인모녀관계의 심리적, 상호작용적, 그리고 발달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다양한 측면의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와 성인 딸의 애착관계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주거상 거리, 혹은 가족발달 주기와 관련시켜 연구한다면 성인 모녀간의 애착에 대한 본질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론 및 가족발달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여 성인 딸과 어머니의 상대방에 대한 애착, 그들의 상호작용, 주거상 거리, 딸의 결혼 및 부모기로의 변환(transitions) 등 성인모녀 관계에서 중요한 제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애착은 부모자녀 관계의 본질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개념중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애착이론은 양육자(주로 어머니)와 유아의 애착관계에 치중함으로써 두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유아기나 아동기 이후의 발달 단계에서 부모 자녀간의 애착관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유지되는 지 알 수 없으며, 둘째 부모자녀간의 쌍방향 애착관계보다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일방적 애착형성에 초점을 둬으로써 부모자녀간 애착의 차이나 상호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애착이론에 가족발달적 접근법을 접목시키는 것이다.

가족발달 이론은 가족을 상호작용하는 성원들의 집합체로 보고 발달적 가족사건들(family events)로 연결되는 변환(transitions)이나 가족발달 단계에 의해 가족의 행동을 설명한다. 따라서 가족발달 이론의 틀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 부모자녀간의 애착관계란 가족생활주기 전 단계에 걸쳐 발달하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으로서 결혼이나 부모됨같은 발달적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 중 가장 지속적이고 결속력이 강한 모녀관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모녀애착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유아기나 아동기의 딸과 어머니 혹은

중년기의 딸과 노년기의 어머니처럼 의존과 보살핌의 관계에 치중하여 연구되어 왔으며, 딸의 성인기에서의 모녀애착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또한 대부분의 모녀관계 연구는 질적, 심리적 측면보다는 접촉빈도나 물질적 교환, 도움 등과 같은 양적, 상호작용적 측면을 주로 다루어 왔으며 어머니와 딸 양쪽 모두를 연구에 참여시키기보다는 대체로 어느 한 쪽에만 의존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향을 보인다.

어머니와 성인 딸의 애착이 그들 사이의 접촉이나 물질적 도움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어떤 연구들은 성인모녀간의 애착과 그들 사이의 접촉이나 도움은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반면(Adams, 1968; Bromberg, 1983; Walker & Thompson, 1983), 다른 연구들은 성인모녀간의 애착이 접촉을 증가시키거나(Rossi & Rossi, 1990) 혹은 그 반대로 접촉이 애착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Lawton, Silverstein & Bengtson, 1994). 한편 모녀간의 주거상 거리는 어머니와 성인 딸간의 접촉빈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며(Rossi & Rossi, 1990), 줄어든 접촉 빈도는 애착을 더욱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Lawton, Silverstein & Bengtson, 1994). 그러나 Troll과 Smith(1976)에 의하면, 성인가족 성원들 간의 애착은 접촉빈도나 주거상의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가족발달이론적 접근방법을 시도하는 연구자들은 성인모녀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족발달 주기의 상의 변환(transitions)이나 발달적 사건들(family events)이 성인모녀 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어떤 연구에서는 성인 딸의 결혼이나 부모기로의 진입이 성인 딸과 그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반면(Bengtson & Black, 1973; Fischer, 1981), Walker, Thompson 그리고 Morgan(1987)의 연구결과는 미혼의 딸들이 기혼의 딸들보다 어머니와 더 밀착된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어머니와 성인 딸간의 애착은 일방적이 아닌 양방향적, 상호의존적 관계로 개념화할 수 있다. 즉, 어머니와 딸은 그들의 애착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지각할 수 있고, 이러한 지각의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각기

상대방에 대한 애착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성인 모녀간의 애착에 관하여 다양한 측면의 접근방법을 가지고 연구할 때, 상대방에 대한 애착이 모녀간의 상호작용 및 주거상 거리, 혹은 가족발달 주기상의 변환과 지니는 관계는 딸의 경우와 어머니의 경우에서 각기 그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성인 모녀간의 애착에 관련된 선행 연구에 있어서 모녀 두 사람을 함께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매우 드물다. 어머니와 딸을 모두 포함시킨 몇몇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딸간의 친밀감이 상호적이라고 보고하였으며(Fisher, 1981; Weishaus, 1978), 친밀감이 높을 수록 모녀간의 물질적 교류는 상호 호혜적이라고 한다(Martell, 1990; Thompson & Walker, 1984). 성인모녀간의 애착연구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애착과 모녀간 애착의 상호 호혜성(reciprocity)이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인 딸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성인 딸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어머니의 성인 딸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성인 모녀의 상대방에 대한 애착이 모녀간의 상호작용, 주거상 거리, 애착 정도의 차이, 그리고 딸의 결혼 및 부모기로의 변환과 갖는 관계의 양상은 딸의 경우와 어머니의 경우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목적적 편의표집에 의해 100쌍의 성인 딸(young adult daughters)과 그들의 친어머니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인 딸들의 표집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학, 사무실, 교회, 소아과의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 졌으며 눈덩이 표집방법을 병행하였고(특히 자녀가 없는 기혼 딸의 경우) 그들의 어머니들은 딸들을 통하여 표집하였다. 연구의 대상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특 징	딸(n=100)	어머니(n=100)
연령(세)	27.54	55.39
교육수준(년)	15.33	11.46
직업(%)		
전일제 직업	34	11
파트타임제 직업	6	2
가정주부	39	78
학생	13	0
자원봉사	0	1
무직	8	8
결혼여부(%)		
기혼	70	86
별거	0	1
사별	0	13
미혼	30	0
자녀수(명)	0.72	3.58
자신이 지각한 사회계층(%)		
중하	10	11
중	56	41
중상	28	42
상	6	6

표집은 횡단적 비교를 위하여 성인 딸의 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루어 졌다 : 미혼의 딸과 그들의 어머니(미혼기), 자녀가 없는 기혼의 딸과 그들의 어머니(신혼기), 자녀가 있는 기혼의 딸과 그들의 어머니(부모기).

본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 통계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딸들의 평균 연령은 미혼 23.4세, 기혼 무자녀 26.9세, 기혼 유자녀 30.8세이며, 그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각각 51.1세, 54.3세, 59.0세이다. 교육수준에 있어서 딸의 평균 교육수준은 15.3년이고 어머니의 경우는 11.5년이다. 대부분의 어머니가 가정주부인 반면, 딸들의 경우는 결혼여부 및 자녀유무에 따라 취업률의 차이가 있었다. 미혼 딸들의 76.7%가 학생이거나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혼 무자녀의 딸들은 전체의 57.7%가 전일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자녀가 있는 기혼 딸들의 취업률은 18.2%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기혼이었으며, 13.0%의 어머니들이 남편과 사별하였다. 기혼 딸들의 평균 결혼기간은 유자녀의 경우 5.8년, 무자녀의 경우 1.6년이며, 어머니들의 평균결혼기간은 32.1년이었다. 기혼 딸들의 자녀수는 1.6명이었고 어머니들의 평균 자녀수는 3.6명이었다. 본 연구대상의 대부분은 그들의 사회계층을 중류에서 중상류로 지각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성인모녀 애착척도, 쌍으로서의 성인모녀 관계 측정(dyadic measures), 사회 인구학적 특징 및 가족변인 측정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인모녀 애착척도는 Thompson과 Walker(1984)의 애착 및 친밀감 척도(Attachment & Intimacy Scales), Troll과 Smith(1976)의 가족애착척도(Family Attachment Scales), 그리고 Hazan과 Shaver(1987)의 애정 경험척도(Love-Experience Scales)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성인모녀 애착척도는 정서적 의존성(emotional dependence), 근접성(proximity), 안정성(security), 특별성(specificity), 신뢰(trust), 상호호혜성(reciprocity)등과 같은 애착 요인에 관한 총 23개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로 부터 '매우 그렇다' (5)까지의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응답자의 23문항에 대한 평정을 합산하여 애착총점으로 사용하며, 높은 점수는 상대방에 대한 애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애착 총점의 범위는 23~115점이다. 성인모녀 애착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α 를 산출한 결과, 딸의 경우에는 .77, 어머니의 경우는 .78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쌍으로서의 모녀관계 측정은 성인 모녀 각 개인이 아닌 성인모녀 한 쌍(dyad)의 관계에 초점을 둔 것으로서 여기에는 최근 1개월간 모녀가 함께 가사, 육아, 공적인 일, 여가 및 쇼핑 등 활동을 공유한 횟수(3문항),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를 주고받은 점 측정빈도(2문항), 그리고 모녀간의 주거상 거리에 대한 척도(1문항)가 포함된다. 활동공유 횟수와 접촉빈도를 합한 총점은 성인모녀간의 상호작용 측정치로 이용되며, 응답자에 대한 상대방(partner)의 애착척도 총점과 모녀간의 애착척도 총점의 차 역시 쌍으로서의 모녀관계 측정치로서 자료분석에 포함되었다.

질문지의 끝 부분에서는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및 가족변인 측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가족변인 측정은 성인 딸의 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에 따른 가족 발달적 단계(미혼기, 신혼기, 부모기)를 알아보기 위

를 위하여 Cronbach α 를 산출한 결과, 딸의 경우에는 .77, 어머니의 경우는 .78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2. 주요 연구 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미혼기(n=30)		신혼기(n=26)		부모기(n=44)		전체(n=100)	
	M	SD	M	SD	M	SD	M	SD
딸의 애착	77.87	16.08	83.23	14.58	82.36	12.50	81.24	14.22
어머니의 애착	86.20	12.18	82.31	16.17	82.75	16.86	83.67	15.36
애착의 차이	10.40	13.35	7.92	6.97	7.11	5.70	8.31	8.98
상호작용	5.02	0.59	4.85	2.08	5.06	2.17	4.98	2.06
주거상의 거리	1.40	1.10	3.19	0.98	3.25	1.26	2.68	1.41

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관심 있는 주요 변인들에 대한 응답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성인 딸과 어머니 모두 상대방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딸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미혼기가 비교적 낮고, 신혼기와 부모기에서는 높았는데 신혼기에 비해 부모기에서의 애착의 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머니의 경우 딸이 미혼일 때 딸에 대한 애착이 가장 높았고 딸의 신혼기와 부모기에서는 애착의 정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딸의 신혼기보다는 부모기일 때 애착이 다소 높았다. 모녀간의 애착의 차이는 딸이 미혼기 일때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딸의 신혼기와 부모기에서는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모녀간의 상호작용은 딸이 미혼이거나 자녀를 가졌을 때 딸의 신혼기에 비해서 더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주거상 거리는 딸의 미혼기에 가장 가깝고 신혼기와 부모기에는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인 딸의 86.7%가 그들의 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고 있으며, 신혼기 딸의 50.0%는 같은 시 다른 동에서, 부모기 딸의 59.1%는 다른 동이나 시에서 그들의 어머니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딸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대방(어머니)의 딸에 대한 애착, 모녀간 애착의 차이, 모녀간 상호작용, 주거상 거리, 딸의 결혼여부(기혼: 1, 미혼: 0) 및 딸의 자녀유무(유자녀: 1, 무자녀: 0)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딸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SPSS REGRESSION 절차를 이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딸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대방(성인 딸)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모녀간 애착의 차이, 모녀간 상호작용, 주거상 거리, 딸의 결혼여부 및 딸의 자녀유무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딸에 대한 애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역시 SPSS REGRESSION 절차를 이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두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들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본 바와 같이 성인 딸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6개의 독립변인 중 4개, 즉 상대방(어머니)의 성인 딸에 대한 애착, 모녀간 애착의 차이, 모녀간 상호작용, 그리고 딸의 결혼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F=38.85, p<.001$). 이들 4변인은 성인 딸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70%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변인에 대해 살펴보면, 성인 딸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어머니가 그들에 대해 갖는 애착의 정도가 높을 수록($p<.001$) 그리고 모녀간의 상호작용이 빈번할 수록($p<.05$) 높아지며, 모녀간의 상호애착의 차이가 커질 수록($p<.001$) 낮아진다.

표 3. 성인 딸과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딸의 애착(n=100)		어머니의 애착(n=100)	
	B	B	B	B
상대방(partner)의 애착	.66***	.71	.92***	.85
모녀간 애착의 차이	-.71***	-.45	.73***	.43
상호작용	1.06*	.13	.29	.03
주거상 거리	.78	.08	-.07	-.01
딸의 결혼 여부	5.27*	.16	-6.75*	-.19
딸의 자녀유무	3.25	.11	-4.98	-.16
상수	27.06		5.32	
R ²	.71		.66	
Adjusted R ²	.70		.64	
R	.85***		.81***	

* $p<.05$ *** $p<.001$

모녀간의 주거상 거리는 딸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발달적 측면에서 딸의 결혼은 그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높여주나($p < .05$) 자녀의 유무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딸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6개의 독립변인 중 3개, 즉 상대방(성인 딸)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모녀간 애착의 차이, 그리고 딸의 결혼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F = 30.13, p < .001$). 이들 3변인은 어머니의 성인 딸에 대한 애착을 64% 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 유의한 영향을 미친 독립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성인 딸에 대한 애착은 상대방(성인 딸)이 그들에 대해 갖는 애착의 정도가 높을 수록 ($p < .001$) 그리고 모녀간 애착의 차이가 커질 수록($p < .001$) 높아졌다. 모녀간 상호작용이나 주거상 거리는 어머니의 성인 딸에 대한 애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딸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딸의 자녀유무는 어머니의 딸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딸의 결혼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p < .05$), 영향력의 방향은 딸의 경우에서와 반대로 나타났다. 즉, 딸의 결혼에 의해 어머니의 딸에 대한 애착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 의

1. 논 의

본 연구는 성인 딸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의 상호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보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이 곳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성인 딸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이며, 어머니의 성인 딸에 대한 애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어머니에 대한 딸의 애착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곧 성인 딸과 어머니의 애착은 상호 호혜적(reciprocal)이라는 선행 연구들(Fischer, 1981; Weisshaus, 1978)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성인 모녀간의 상호작용, 모녀간 애착의 차이, 그

리고 딸의 결혼여부는 성인 딸과 어머니의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밝혀졌는데, 특히 이들 변인과 관련하여 성인 딸과 어머니가 서로에 대한 애착을 지각하는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성인 모녀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모녀간 애착의 차이가 커질 수록 성인 딸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낮아지는 반면, 어머니의 딸에 대한 애착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 딸들은 모녀간의 상호작용이 빈번할 수록 어머니에 대한 높은 애착을 갖는 반면, 어머니들은 딸에 대한 애착을 지각함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빈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을 시사해 준다. 첫째, 성인 딸들은 모녀간의 애착이나 상호작용에 있어서 그들의 어머니보다 훨씬 상호 호혜성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둘째, 성인 딸과 어머니간의 애착에 상호 호혜성이 없을 때, 즉 어느 한 쪽의 상대방에 대한 애착이 다른 쪽의 애착보다 커질 때, 대개 딸의 애착은 낮고 어머니의 애착은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사점은 성인 딸들이 그들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호혜성에 더욱 민감하다는 선행연구들(Martell, 1990; Thompson & Walker, 1984)과 일치하는 것이다.

모녀간 애착의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녀간 상호애착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기는 딸들이 미혼기일 때로 밝혀졌다. 이 단계는 대개 청소년기 직후로서 아직도 부모에 대한 애착으로의 회귀보다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성인 딸의 결혼이 모녀간 상호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으로 밝혀졌으나 딸의 부모 됨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딸의 결혼은 딸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높여 주었는데 이것은 우리문화에서 결혼이라는 시점이 딸들에게 부모와의 장기적 분리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추측할 수 있다. 반면 딸의 부모 됨은 자신의 자녀와 새로운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로서 어머니보다는 자녀를 주요 애착대상으로 자리 매김하는 애착관계의 재조정 및 변화단계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딸의 경우에서와 달리 어머니들은

딸의 결혼에 의해 딸에 대한 애착을 낮게 지각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의 가부장적 규범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우리문화에서 여성들은 결혼과 함께 친가와 외의 관계를 떠나 시가의 일원이 되어 시가의 가족 관계에 더욱 치중하여 살아가도록 사회화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중년기 어머니들은 그들의 딸들에 비해 이러한 전통적 사회화의 영향을 더욱 반영하리라고 추측되며 이러한 규범이 내면화되어 딸에 대한 그들의 애착이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모녀간 주거상 거리가 성인 모녀 애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는 Troll과 Smith(197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아기에서의 근접성(proximity)과 안정에 기반을 둔 탐색(secure based exploration)과 같은 애착 유형이 성인기에 와서는 상징적(symbolic) 애착으로 변형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성인기에서의 부모자녀간 애착은 반드시 물리적 거리에 의존하지 않아도 심리적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애착의 대상을 동일시하거나 상상할 수도 있고 사진과 같은 기억될 물건을 지니고 다님으로써 애착대상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주거상의 거리에 관계없이 성인 딸과 어머니가 서로에 대해 대체로 높은 애착 정도를 보인 것은 이러한 성인기의 상징적 애착을 잘 나타내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목적적 편의 표집방법을 이용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비교에 초점을 두고 현재의 성인모녀 애착관계만을 조사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례 수를 늘리고 표집방법을 개선하여 성인모녀 애착관계를 종단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모녀 애착관계에 대한 가족발달적 검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아동기에서의 부모-자녀 애착개념을 성인기에 적용하여 가족발달상의 변환(성인 딸의 결혼 및 부모됨)과 관련시켜 분석함으로써 애착이론이 가족발달적 접근법과 잘 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또한 어머니와 성인 딸 개인뿐만 아니라 쌍(dyad)으로서의 모녀관계를

분석단위로 삼음으로써 성인모녀 애착에 관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성인모녀 애착의 상호호혜성이나 모녀간 애착지각의 차이는 가족연구에서 쌍으로서의 접근(dyadic approach)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참고문헌

- 1) Adams, B.(1968). The middle-class adult and his widowed or still married mother. *Social Problems* 16, 51-59.
- 2) Bengtson, V. & Black, O.(1973).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ontinuities in socialization. In P.Baltes & K.W. Schaie(Eds.), *Life 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Personality and Socialization*(pp.207-234). NY: Academic Press.
- 3) Bromberg, E.(1983). Mother-daughter relationships in later life: The effect of quality of relationship on mutual aid.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6, 75-92.
- 4) Cicirelli, V.G.(1983).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815-825.
- 5) Fischer, L.R.(1981). Transitions in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613-622.
- 6) Hazan, C. & Shaver, P.(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7) Lawton, L., Silverstein, M. & Bengtson, V.(1994). Affection, social contact, and geographic distance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57-68.
- 8) Martell, L.K.(1990). Perceptions of equity by mothers and daughters during daughters' first pregnancy. *Family Relations* 39, 305-310.
- 9) Rossi, A. & Rossi, P.(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Y: Aldine de Gruyter.
- 10) Shaver, P.R. & Hazan, C.(1988). A biased overview of the study of lo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Relationship* 5, 473-501.
- 11) Thompson, L. & Walker, A.J.(1984). Mothers and daughters: Aid patterns and attachment. *Journal of*

- Marriage and the Family* 46, 313-322.
- 12) Troll, L.E. & Smith, J.(1976). Attachment through the life span : Some questions about dyadic bonds among adults. *Human Development* 19, 156-170.
 - 13) Walker, A.J. & Thompson, L.(1983). Intimacy and intergenerational aid and contact among mothers and daught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841-849.
 - 14) Walker, A.J., Thompson, L. & Morgan, C.S.(1987). Two generations of mothers and daughters : Role position and interdepende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1, 195-208.
 - 15) Weishaus, S.S.(1978). *Determinants of affect of middle-aged women towards their aging mo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Southern California.
 - 16) Weiss, R.S.(1982). Attachment in adult life. In C.M. Parkes & J. Stevenson-Hinde(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pp.171-184). NY : Wiley.
 - 17) Weiss, R.S.(1991). The attachment bond in childhood and adulthood. In C.M. Parkes, J.Stevenson-Hinde & P. Marris(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pp.66-76). London : Routledge.